

밀리언셀러 시집이 연 시의 대중화시대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9 《접시꽃 당신》에서 《서른, 잔치는 끝났다》까지

87년 6월의 시민항쟁 열풍을 맞아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항쟁의 제도명작업이 활발하다. 6월항쟁은 80년 5월 광주에서 살륙을 자행하며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필연적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귀결점이었다. 84년 2·12 총선, 86년 5·3인천사태,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및 축소조작 같은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6월 항쟁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시집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

87년을 전후해서 문학계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그 가운데 시집의 베스트셀러화는 가장 굵직한 사건으로 두권의 시집이 화제를 불러모았다. 화제의 책은 도중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과 서정운 시인의 《홀로서기》로 이 시집들은 시집 초유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되고 있다. 시집의 베스트셀러 시대를 연 책은 《접시꽃 당신》(실천문학사, 1986)이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시로 승화시킨 애절한 사부곡(思婦曲)인 이 시집은 주부를 중심으로 읽히기 시작했지만, 곧 모든 계층으로 퍼지는 놀라운 파급력을 과시했다.

“얼마전 동두천 지나 전곡에 간 적이 있다. 차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때우느라고 정류장 근처 영세규모의 책방에 들렀는데 문방구를 겸하여 팔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귀대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 병장 계급장의 사병이 시집을 찾으니까 책방 주인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뜸 《접시꽃 당신》을 들고 나왔다. 실상 그 책방에 시집은 《접시꽃 당신》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렇게 해서 출간된 지 다섯달 만에 십오만부가 팔려나가는 신기록의 일면을 우연히 목격한 셈이 되었다.”(최두석, <대중성과 연애시>에서, 《창비》1987)

1백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측되는 이 시집도 수요가 뜰때 지난 2년 동안 절판상태였다. 실천문학사는 시집목록 가운데 일부를 표지를 바꿔 파내고 있는데, 출판사를 대표하는 이 시집도 이번 주에 새로운 표지로 선보인다. 특히 88년 출간된 《접시꽃 당신·2》는 본래 이름을 찾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으로 나온다. 전편의 후광에 힘입고자 하는 마케팅적인 고려는 이해 못할 바 아니

지만, 속편임을 강조한 것을 시인 자신도 써내려가지 않았다는 데 이제 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접시꽃 당신》이 촉발시킨 시집 열풍은 《홀로서기》(청하, 1987)가 이어받는다. 《접시꽃 당신》이 시집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신기원을 개척했다면, 《홀로서기》는 두가지의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첫째는 지방에서 봄을 조성해 수도권으로 수요를 확장한 점이다. 출판 관련 요소의 90%가 서울 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둘째는 어마어마한 판매부수. 무려 2백만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 시집의 어떤 면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는 단서 아래 7연으로 이뤄져 있는 표제시는 엄청난 흡인력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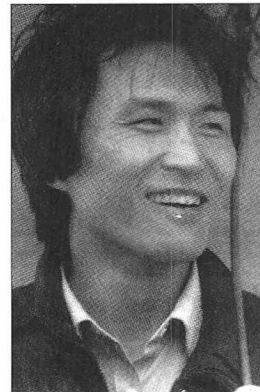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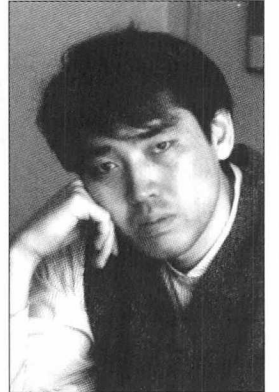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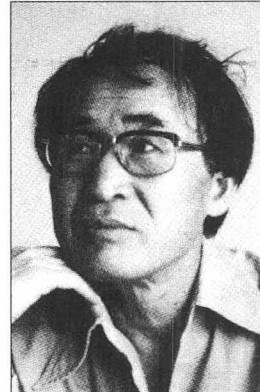
“기다림은/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좋다./가슴이 아프면/아픈 채로./바람이 불면/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아득한 미소./어딘엔가 있을/나의 한쪽을 위해/헤매이던 술한 방황의 날들./태어나면서 이미/누군가가 정해졌다면./이제는 그를/만나고 싶다.”

이 두 시집보다 먼저 출간된 김초혜 시인의 《사랑굿》(문학세계사, 1985) 역시 시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사랑굿’은 연작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듬해 나온 《사랑굿·2》에 수록된 작품까지 모두 108편으로 이뤄져 있다. 김초혜 시인은 《태백산맥》을 지은 조정래씨의 부인. 부부가 시와 소설에서 각각 베스트셀러를 퍼냈으니 부창부수라 할 밖에.

사과 하나 들로 쪼개 나누는 사랑

6월항쟁 직후와 올림픽이 열렸던 해에 출간된 시집 세권은 치열한 세계인식과 발랄한 감수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두번째 시집 《나의 칼 나의 피》(인동, 1987)가 나올 때까지도 김남주 시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다.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지 않아 담배갑의 은박지에 새겼다는 그의 시를 문예지나 신작 시선집을 통해 접

87년을 전후해 일어난 《접시꽃 당신》과 《홀로서기》의 열풍은 시집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김남주 백무산 등의 시집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드러내며 다가섰고, 90년대 접어들자 대중문학의 폭발을 예감한 듯 새로운 세대에 의한 시문학이 등장했다.



윗줄 왼쪽부터
고은·유하·
백무산·최영미씨.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한마당, 1986)에는 다른 옥중시인들의 신작들과 나란히 실려 비장미를 더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발표한 작품과 미발표작을 한데 묶은 두번째 시집은 김남주문학의 진면목이다. <쓰다 만 시>와 <다 쓴 시>에서는 촌철살인의 풍자를 보여주고, <전사> <벗에게> <나 자신을 노래한다>에서는 혁명시인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다그치며, <학살>과 <달라> 연작을 통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눔의 미학” 역시 김남주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들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사랑·1>)

84년 노동자의 정서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지옥선> 연작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온 백무산 시인은 첫번째 시집 《민국의 노동자

여》(청사, 1988)를 통해 단단한 문학역량을 과시한다. 시집이 나온 이듬해에는 제도권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는 수상식장에서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구호를 외쳐 참석한 자유주의적 문인 교수들을 침묵에 잠기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백무산은 6월항쟁에 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문학으로 표현한 시인이 아닌가.

하지만 백무산은 노동해방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관념적인 급진성에 의존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명철한 인식이 라는 시인 본연의 기질에 기대고 있다.

“새마을 호는 아주 빨리 온다/무궁화도 빨리 온다/통일호는 늦게 온다/비둘기호는 더 늦게 온다//새마을호 무궁화호는 호화도시역만 선다/통일호 비둘기호는 없는 사람만 탄다//새마을호는 작은 도시역을 비롯하며/통일호를 앞질러 달린다/무궁화호는 시골역을 비롯하며/비둘기호를 앞질러 달린다//통일 쫓아야 연착을 하든지 말든지/평화쫓아야 오든지 말든지” (<기차를 기다리며>)

90년 노동해방을 향한 회원을 강파르게 노래한 두번째 시집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



을 딛고)를 펴내고 한동안 침묵했던 백시인은 지난해 세번째 시집 《인간의 시간》을 내놓으며 활동을 재개했다.

영상매체와 시의 만남

대중문화와의 의사소통은 새로운 세대에 의한 90년대 시문학의 뚜렷한 특징이다. 특히 신세대의 교양과목이 된 영화는 젊은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하 시

인은 90년대 대중문화의 폭발을 예감한 징후의 시인이고, 《무림일기》(중앙일보사, 1988)는 그 증거물.

예술비평에서 키치(kitsch)로 일컬어지는 영화·만화·프로레슬링·무협소설·삼류 포르노 영화 같은 것을 즐겨 소비하는 그는, 그것들을 시의 체계로 삼았다. '무림일기' 연작에서는 무협지의 표현양식을 빌려와 군사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희화화하고, '영화사회학' 연작은 영화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진작에 "페러디로 조성된 시적 원리가 어지간한 긴장을 유지하고"(김현), "우리시대의 초상화를 사실적으로 그렸다"(김인환)는 평가를 받았지만, 무협지의 형식을 시로 변형시키는 '둔갑술'이 문학 제도권의 인정을 받는 일은 10년 후에 이뤄진다. 유하 시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문학상을 뒀다.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90년대 대표시집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창작과비평사, 1994)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 문학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40만부를 넘는 경이적인 판매부수는 모든 논란을 접어두게 만들었다. 하이틴 취향의 제목이긴 시집은 꾸준히 팔리고 읽혔으나 문학적 인검토가 가능한 시집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것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하이틴 시집의 수요자가 한번 눈을 준 것 갖고 과도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의 제기도 있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시집이 잘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5만부만 넘어도 감지덕지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행진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만인보》의 첫권은 '창작사'를 통해 나왔다. 창작사는 창작과비평사가 되살아나 붙여진 이름으로, 이 시집만 해도 우리의 아픈 출판현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고은 시인은 자신조차 몇권의 책을 펴냈는지 알지 못하는 다작의 저자. 어릴 적 고향 사람들이나 역사적 인물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문인·교수·학자를 대거 등장시킨 10~12권에는 출판사 대표의 이름도 더러 눈에 띈다. 박맹호(민음사), 김인호(한길사), 나병석(폴빛).

— 최성일 기자

출판·미술·전문·회사



불황을 이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라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곱명과 우수 디자이너 다섯명 그리고 연구 기획하는 아이디어맨 세명으로 구성된 색다른 눈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부에서는 종이일체 일러스트, 파스텔화, 지점토, 유화 및 기타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으며, 픽처북, 표지, 카렌다, 카드, 참고서, 교과서, 학습지, 스토리북등 기타, 어떤 일러스트도 소화 해 내는 국내 유일의 팀입니다. 광고 디자인부는 사보편집

좋은책 만들기 15년

포인트라인은 머리가 있습니다.

기획부터 단행본, 카달록, 리플렛, 신문, 잡지광고, 표지 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및 C.I.P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에서는 일반 단행본 기획, 유아도서 기획, 아동도서 기획, 학습지 개발, 유치원 교재 개발까지 지난 15년간 항상 앞서가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출판 미술 전문 집단 포인트라인은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하며 한국 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 당당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POINT line

●전화주시면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 928-3491 ~3 ●팩스 : 926-2246

부설: 일러스트 연구원 수강생 모집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의 실현”

기 초 과 목

·수채화 ·유 화
·뎃 생 ·아크릴

본 과 목

·일러스트 채색 ·종이일러스트
·일러스트 뎃생 ·편집이론
·구도론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갖고 미술에 관심있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러스트전문학원
포인트라인

●상담문의 : 928-3491(대)
“전화하셔서 김민철 선생님을 찾으세요”